섬진강 '벚굴' 수확량 매년 감소 … 대책 급하다

댐 건설로 유량 줄어 수질 오염·생태계 파괴

광양만 매립 바닷물 역류해 염분농도 증가

재첩·민물장어·참게 등도 감소… 어민 이중고

매년 입춘께부터 벚꽃이 필 무렵까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섬진강 하구에서 수확하는 일명 '벚굴'(강굴·사진)의 수확량이 해마다 감소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강굴은 간만의 차가 커서 바닷물이 강 쪽으로 깊숙이 밀고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섬진강과 남해바다 사이 단맛과 짠맛이 섞인 곳에서 주로 채취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섬진강 하류 기수역(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 하천 유지수량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서서히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하류지역에는 바닷물이 역류해 염분 농도가 증가하면서 농사 피해는 물론 최대의 재첩 서식지도 파괴돼 섬진강에 의존하던 주민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강굴 채취는 섬진강 하류에서만 이뤄졌지만 해마다 바닷물의 수계가 올라와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서 수확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서식지 또한 해마다 상류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섬진강 수계는 1965년 섬진강댐 공사 이후 보성강댐, 주암댐, 상사댐, 동복댐 등이 차례로 건설되고, 다압 취수장에서 하루 20만t을 취수하면서 섬진강 유량이 급격히 줄어 하류지역의 염해 등 생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광양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해 광양만을 메우면서 바닷물의 역류로 갈수기에는 염분농도 증가로 농·어업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섬진강 기수역 주변 농·어민들은 지하수를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도 사용 못 할 뿐 아니라 지역의 대표 수산물인 재첩, 민물장어, 참게, 강굴 등의 생산량 감소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이에 섬진강 주변 11개 시·군이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 지속가능한 하천으로 재탄생하도록 섬진강의 수질환경 보전 복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중이나 결과는 미미하다.

이들은 섬진강의 생태적 건강성과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조사사업의 조속 추진과 현실에 맞는 수량 확보 및 용수배분 계획의 재수립, 수질관리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광역하천 특성에 맞는 정부 주도 계획수립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섬진강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전무한 가운데 국가하천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라는 11개 지자체의 당연한 요구가 외침에 그치고 있다.

어민 이성면씨는 "5년 전만 해도 잠수를 하면 10분 만에 한 망씩 올라왔는데 지금은 30분이 걸린다"면서 "장마때 종패가 많이 쓸려가고 섬진강의 환경도 갈수록 바뀌며 염도가 높아서 수확량이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섬진강은 진안군 백운면 '데미샘'에서 발원해 남해 광양만(光陽灣)으로 흘러든다. 섬진강 하구에 자리한 망덕포구 일대는 강굴과 재첩이 많은 잡히는 곳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율촌·묘도해역 새조개 채취권 허가해달라"

여수시 삼일동·묘도주민엔 2개월 채취 허가

율촌 어촌계 어민들, '형평성 제기' 항의시위

여수시 율촌면과 묘도 사이 해역의 새조개 채취권을 놓고 일부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시 율촌면 6개 어촌계 어민 200여명은 14일 여수시청앞에서 새조개 채취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여수시의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의 형평성 문제를 항의했다.

이들은 여수시가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로 지정돼 사실상 어업행위를 할 수 없는 바다에 묘도·삼일동 어촌계에는 지난달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여 동안 새조개 채취 허가를 내준 반면 인근 율촌 어촌계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율촌 어민들은 형평성을 들어 지난달 김충석 여수시장 면담을 비롯해 시 측에 수차례 채취허가를 요구했지만 결국 허가가 나지 않자 이날부터 집회를 시작했다.

여수시는 묘도와 율촌면 사이 해역에 대해 묘도어촌계에 142ha, 삼일동 어촌계 172ha에 대해 새조개 채취 행위를 최근 허락했다.

그러나 율촌면 6개 어촌계가 신청한 율촌해역 80ha와 묘도·삼일해역 190ha에 대해 채취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여수시는 율촌면 사이 해역에 대해 광양항 진입항로와 항만공사 예정 인접지역이라는 이유로, 묘도·삼일해역에 대해 '분쟁지역'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율촌 어촌계 주민들은 오는 30일까지 집회 신고를 내고 항의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2개월간 조개채취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묘도 등 인근 어촌계와 분쟁을 피하려면 서로 합의해야 하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순천 어르신들, 쓰레기 분리배출 계도 앞장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순천시 지역 어르신들로 구성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이 쓰레기 분리배출 계도에 발벗고 나섰다.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260명은 지난 10일부터 순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 배출 계도에 나서고 있다.

시는 가정에서 늘어나는 각종 쓰레기를 분리 배출함으로써 재활용 에너지화를 위한 분리배출의 중요성 및 시민 의식전환을 위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을 활용해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순천시 정미자 담당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이 앞장서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계도한다면 시민과 젊은이에게도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예정열기자 jyj@

농협 완도지부, 청산도서 '식사랑 농사랑' 홍보

NH농협 완도군지부(지부장 김정오)가 지난 12일 청산도 '슬로시티 걷기축제' 행사장을 찾은 상춘객들을 대상으로 생수 나눠주기와 우리 농산물 시식행사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NH농협 완도군지부 직원 20여명은 청산도 슬로 길 입구에서 500㎖ 생수와 함께 관내에서 생산한 방울토마토와 떡을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직원들은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와 '지역민과 함께하는 농협'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매고 '식(食)사랑 농(農)사랑' 운동 홍보를 하며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기도 했다.

/완도=정은조기자 · 서부취재본부장

전남 드래곤즈-광양경찰서, 상호협력 협약 체결

전남 드래곤즈(사장 박세연)가 광양경찰서(서장 장효식)와 지난 13일 광양 전용구장에서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상호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상생 발전과 함께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 드래곤즈와 광양경찰은 관내 17개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들을 매 홈경기때 초청해 경기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 시작전 학교 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다중 운집시설인 경기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경기 전·후 교통지도 지원 및 경기장 내 경찰 112타격대를 고정 배치하기로 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